



김호정 엘리사벳 | 영화배우

| 대화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만 있던 제게 친구는 그냥 꼭 쥐고 있으라며 작은 나무 십자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신자가 아니었던 저는 기도드리기엔 부끄러워 아플 때마다 친구 말대로 나무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견뎠고, 점차 상태가 좋아져 침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나무 십자가를 건넨 친구가 교도소에서 작은 연주회를 할 거라며 함께 가자고 했고, 사제복을 입은 신부님 두 분과 동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 중 한 신부님은 저와 같은 종류의 병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일도 하지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않으며 늘 집에 숨어있었다시피 한 저와 달리 신부님은 아파도 계속 신부님이시더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지 이렇다 할 대화 없이 우리는 서먹한 분위기 속에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참 따뜻한 음악회였습니다. 친구는 재소자들을 위해 연주했고 두 신부님은 기도문을 읽어주셨습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부쩍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부님과 저는 투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자신의 병으로 고통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어떤 고통이었을까 생각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조금 이나마 느껴보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병 때문에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서 할 일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속상하고 원망스럽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제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부님은 또 자기가 아는, 한 바이올리니스트는 손을 다쳐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게 됐지만 지금은 바이올린 만드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연주했던 사람이라 누구보다 바이올린을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냐며 저에게 제 일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 그 분야에 새로운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느덧 서울에 도착해 우리는 그날 아침 처음 만났던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로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두 신부님은 마지막 인사로 저에게 “성당에 한 번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말은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다시 만날 약속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도소에 다녀온 이야기를 성당에 다니는 친한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는 대뜸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키는 게 도리라며 주일에 성당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갔더니 글썽 친구가 딱하니 저를 예비자 교리에 등록해 뒀고, 얼떨결에 저는 교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중간에 관둘까 봐 반년 동안 저를 데리고 성당에 다니며 함께 교리 공부를 하는 성의를 보였고, 그 덕에 저는 결국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신부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전 다시 학교로 돌아가 연출가의 꿈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열고 신부님과 대화하지 않았더라면, 영혼을 담은 진실한 말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봅니다.



바티칸도 나라인가요?

바티칸의 공식 명칭은 '바티칸 시국'으로 엄연히 독립국가입니다. 바티칸 시국은 담장과 성 베드로 광장의 기둥으로 로마 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바티칸 시국의 경계를 설정한 것은 1929년 맺어진 라테라노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에서 이탈리아는 바티칸 시가 일정한 영토와 국민,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교황에 대한 모독은 국왕과 같은 비중으로 이탈리아 법의 처벌을 받으며 교회의 주요 법인 조직체는 정부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날의 바티칸 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